

Robert Vannoy 박사, Kings, 강의 13

© 2012,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엘리아와 구속사 설교

복습: 모범적이고 구원적인 역사적 설교

지난 주에 우리는 다소 이론적인 방식으로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를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적 이야기에 대한 설교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나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주로 우화적 접근 방식을 무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예시적이거나 예시적인 접근 방식과 구속적 역사적 접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구약 신자들의 삶에서 예와 예를 찾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부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적 서술을 정의롭게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이러한 이야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 접근을 통한 엘리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구속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엘리야 이야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당신이 아직 그 참고문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습니다. 제가 강좌의 시작 부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당 참고문헌의 3페이지를 보면 "구약 서사 본문의 설교적 사용"이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습니다. Sydney Greidanus의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 보라고 한 첫 번째 책은 그의 책 *현대 설교자와 고대 본문 의* 9장에 있는 히브리 이야기 설교에 관한 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과 그 장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역사적 서사에 대해 설교할 때 거기에서 유용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ola Scriptura 의 두 번째 항목 : *역사적 본문 설교의 문제와 원리*. 본질적으로 약 20년 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쓴 그의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가 지난주에 네덜란드에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유형의 설교, 즉 모범적 설교와 구원적 역사적 설교에 관한 논쟁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이러한 방법을 놓고 오가는 논쟁에 관한 많은 기사를 사용하여 다소 강렬한 논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다음 두 개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구속적

역사적 접근 방식을 옹호하는 Carl Trueman의 기사와 C. Trimp의 기사입니다.

마지막 항목 은 네덜란드 사람이기도 한 MB Van't Veer가 쓴 *나의 신은 야훼*라는 책입니다. 그는 몇 년 전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논쟁의 구속적 역사적 측면을 대표합니다. 이 책은 실제로 열왕기의 엘리야 이야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책의 부제에 "배도 시대의 엘리야와 아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꽤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원적 역사적 관점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 중 일부를 꺼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 생각엔 이건 우리 도서관에 없는 것 같아.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Isaiah Press라는 캐나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Great Christian Books 매장을 통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책을 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접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엘리야 이야기를 다루는 Van't Veer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D. 오므리 왕조 1. 오므리 2. 아합

... d.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1. 엘리야의 첫 등장 – 열왕기상 1-6장 개요로 돌아가면 지난 주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페이지 맨 위에 있는 "d"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나는 “1” “오므리”와 거기에 있는 하위 요점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는 “아합”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바알 숭배의 위협에 대해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d”,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으로 귀결시킵니다. 그리고 “1”에는 “엘리야의 첫 등장, 열왕기상 17:1-6”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으로 넘어가서, 당신이 설교를 전개하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하려 한다는 가정하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Van't Veer는 그 본문에 대해 토론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에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주제를 사용합니다. 즉, Van't Veer의 견해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에도 언약을 지키셨느니라.

Van't Veer가 지적한 것은 아합의 시대이고 이세벨의 시대도 엘리야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끝 부분에서는 아합과 그의 통치가 얼마나 사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1에 이르면 갑자기

엘리야가 거의 난데없이 나타나서 거기에 있고 아합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때는 엘리야의 때이기도 합니다. Van't Veer는 Ahab와 Elijah라는 두 인물에서 대조를 구현했다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대조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표현에 존재하는 대조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형태, 즉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대조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진리와 오류, 믿음과 불신의 대조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대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동일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는 정반대가 있고 선은 날카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결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합의 의의 따라서 아합이 묘사된 앞 장에서는 어두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에는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는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 기간 중 이 특별한 시기를 설명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란 이 특별한 시간에 바쳐진 자료의 양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즉 이스라엘 왕국시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아합의 시대와 아합의 집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대조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윗부터 포로생활까지의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 묘사는 열왕기상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이 역사에서 아합의 의미는 그가 이스라엘을 갈림길에 놓은 다음 의식적으로 그들을 실제로 재앙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북왕국을 통치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북왕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 남왕국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이 행함과 같이 하였느니라.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영향력은 남쪽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두었고, 물론 아달리아는 아마도 적어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은 아달리아가 유다에서 다윗 왕가를 전멸시키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 계보를 보존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벌이신 논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에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언약을 버린 것이 두 가지 면에서 아합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혼합주의 죄 아합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죄는 혼합주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합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진리와 오류 사이의 대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합주의는 대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신권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언약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 바로 옆에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인 예배의 장소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첫 번째 계명을 어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법 전체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는 북왕국에 이교 숭배를 소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되돌아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무렵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돌아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다른 신들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 전체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차 그 안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hab의 의식적인 정책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합이 끝까지 가기를 꺼렸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근본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신이다”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대립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둘 다 원했습니다. 그는 야훼 옆에 바알을 원했습니다. 즉, 그는 혼합주의를 원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의 태도는 아마도 이세벨의 태도보다 더 위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더 기만적이고 위험한 입장인 것 같아.

그러므로 혼합주의의 죄는 아합의 죄였습니다. 혼합주의는 상충되는 신념의 결합이다. 혼합주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주위에 그어 놓으신 선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은 언약의 백성과 다른 백성 사이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그들의 신들에게서 떼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신들과 구별되고 구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주위에 그어 놓으신 선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 혼합주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제시한 대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신권정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구약 시대처럼 국가적, 민족적, 정치적 노선을 따라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의 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엘리야와 아합 시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매우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포스트헤겔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헤겔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논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다음 대립이 발생하고 그것은 또 다른 대립을 만드는 종합에 의해 해결되며 그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철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상대주의였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사라졌고, 우리는 서구 세계의 사고방식이 그런 종류의 생각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주위에 그어 놓으신 선을 지우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확실히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전체적인 구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조를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를 형성하는 방식 등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주위에 정하신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그어주는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지라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을 버린 것은 아합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엘리야에게서 나타난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엘리야에게서 나타난다. 아합이 표현한 그런 배경에 비해 갑자기 여기에 엘리야가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소개도 없고, 그의 배경이나 출신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 엘리야가 그 자체로 설교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의 이름은 사실상 그의 삶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Van't Veer의 책 제목입니다. *나의 신은 야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쎄, 나는 그의 이름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온 근본적인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시라”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히브리어로 이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분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입니다. 대명사 접미사 "하나님"인 엘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강점이 무엇이었는데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호소했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행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하나님께 행하시기 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했고, 약속하신 일을 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심판은 실제로 단순히 언약의 저주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언약 저주 링크 성약이 언제 맺혔는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하면 특정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약과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가 미혹을 받아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에게 절할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신명기 28:15-18: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너희는 그 도시와 시골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태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의 소와 양의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22절 아래에는 저주의 긴 목록이 나옵니다. 22절에 내려가면 첫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역병과 질병과 번개와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라.” 23절: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낯이 되리라. 당신 아래의 땅은 철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나라의 비를 티끌과 가루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가뭄이 언약의 저주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 창공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즉, 엘리야의 강점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행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것은 비를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신명기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위대한 힘을 상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의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가뭄을 요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호소했습니다.

그 응답 에서 주님은 바알의 약함을 능가하는 주님의 강함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자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비의 현상은 바알의 영역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무력하여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물론 지금 우리는 엘리야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대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우리의 힘은 엘리야가 있었던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언약적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일과 행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틴어 종교개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 모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뜻의 'ora et Labora'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한 일을 주목합니다. 그는 기도에서 발을 딛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에는 기도 관련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임스에게서만 그것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그는 가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7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에도 그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존하고 강화하며 모든 혼합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엘리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호소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고 이 대조를 유지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첫 절을 구속적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너는 이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라 명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느니라.”

2. 엘리야의 숨김은 계시적 의미가 있음 – 그릿 시냇가 그래서 2-6절의 주제는 “엘리야의 숨김은 계시적 의미가 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계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개발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엘리야의 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대중의 눈에는 엘리야가 사라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논제는 엘리야의 숨김도 계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첫째, 그의 은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절에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는 언약의 저주가 실현되도록 스스로 기도한 다음 그것이 임할 것을 알리면서 아합에게 맞섰습니다. 2절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행동과 관련된 어떤 명령도 읽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엘리야가 의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사람들을 주님께 다시 부르고 공개 사역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광야로의 후퇴와 그의 은폐는 탈영병의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하는 주님의 종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여기를 떠나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많은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신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의 예언적 임무는 끝났는가? 왕에게 가뭄에 대한 선언이라는 짧은 한마디만 그에게 허락될 것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질문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그릇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은폐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은폐는 계시입니다. 그가 왜 쫓겨났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제거되었고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의 안전을 위해 행해졌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멜산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아합이 그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왜 그를 죽일까요? 왜 그가 숨겨졌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안전이 주된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뿐이라면 왜 오바댜가 그를 지키지 못했겠는가? 아합이 박해를 받는 동안 오바댜는 다른 선지자들의 그룹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협력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부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은폐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은폐는 계시라는 것이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대한 폭로입니까? 계시가 그쳤다는 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역할은 단순히 신자 전체의 모형이나 본보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릇으로 갈 때, 그것은 단지 신자가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자였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에서 자신의 대변인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숨김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였습니다. 그분의 숨김은 계시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계시라는 용어가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즉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계시입니다. 그의 숨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선지자의 제거가 심판을 확증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심판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말씀의 집행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지만, 그 자신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계속 교통하시고 엘리야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3. 엘리야가 은폐된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셨던 의의 3. “엘리야가 은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셨던 의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돌보시는 예로서 자주 사용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자녀들이 굶주림이나 목마름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까마귀를 보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릇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기적적인 돌봄의 상징이 됩니다. 까마귀는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봅시다. 이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까? 나는 그런 종류의 독서가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신신했지만, 가뭄과 기근의 때에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7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대신에 그들을 예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당신이 그 사건을 구속사의 맥락에 놓을 때 우리에게 더 나은 관점이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불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원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방법으로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 노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근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우연이나 반란 등 어떤 수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숨겨졌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엘리야의 숨김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엘리야보다 더 큰 자” –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넷째, 엘리야의 숨김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엘리야보다 더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약의 저주를 위해 기도하고 그 제정을 선언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저주를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었지만 용서나 칭의를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무력하다; 그는 출애굽기의 모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민족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 백성의 형벌을 스스로 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백성들을 언약의 저주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알았어, 10분만 쉬자.

Briana Thomas 와 Rebecca Brule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

